

12 기획-후마니타스 우수강의 ① 김태경 교수 '그리스신화와 철학'



인간의 인문학적 지성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신화적) 요소와 이성적(합리적) 요소의 양면성을 통해 전개돼 왔으며 이 둘은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다름을 통해 배우는 인문학적 지성: 그리스신화와 철학



김 태 경

부교수 · 후마니타스칼리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신문이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기획하는 '후마니타스 우수강의'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 중 우수강의로 선정된 강의 교수자의 기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양 강의 지침서를 제공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우리신문이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국제캠퍼스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선정 우수강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국제캠퍼스는 직전 학기 강의 평가 점수와 수강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교과영역별로 후마니타스칼리지 우수강의를 선정하고 있다.

<그리스신화와 철학>은 어떤 과목일까?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 과목일까? 이 강의 내용과 현재의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대학 교양과목으로서 꼭 필요한 과목일까?

그것도 고대 그리스의 그것을. 수강 신청을 하면서 이 과목을 접할 때 드는 생각일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대 그리스가 낯설 것이고 첨단과학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에게 신화와 철학은 거리가 멀어 보일 테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이 과목을 바라보는 이유는 신화가 흥미를 끌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에 그것을 재미있게 읽은 탓이다. 또한 철학 때문에 어렵다는 인상도 들 것이다. 그런데도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문학적 지성은 필요하다고 여러 곳에서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상은 타당할까? 다시 말해 이 과목은 여러분의 흥미와 인문학적 지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신화란 무엇이고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화와 철학은 하나로 뮤일 수 있을까? 이 과목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에 대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과목일까? 아니면 신화와 철학이 함께 뮤여 있다는 점에서 이 과목은 그런 지식 습득 이상의 것을 지향하는가? 신화와 철학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고대에 인간의 사유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자각과 그 세계와의 관

계 속에서 발생한다. 인간의 사유

는 그 세계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그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한다.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인간 사유의 산물로서 신화와 철학이 나타난다. 신화와 철학은 동일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간 사유의 두 양태이다.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을 토대로 상징과 은유 등을 동원해 세계를 그럴듯하게 묘사한다. 철학은 이성적 합리성에 근거해 인간이 마주한 세계의 현상을 논리와 증명을 통해 설명한다. 신화의 언어인 미토스는 세계를 묘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말로써 치밀하고 정확할 필요가 없다. 그렇듯 하면 된다. 그러니 미토스 세계에서 사람은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창공을 날 수 있고 동물이나 돌, 해와 달, 꽃과 나무와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사유 주체인 인간과 관찰대상인 자연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우리가 접하는 신화는 상호 소통의 자유가 허용되는 흥미로운 이야기 체계이다.

철학의 언어인 로고스에서 인간은 자연과 분리돼 있다. 인간만이 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로고스에서 자연은 영혼이 없는 죽은 존재가 된다. 자연과 분리된 로

고스 세계의 인간은 결국 자연과 단절된 외로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자연과 단절된 인간의 아픔이다. 인간은 이 외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라는 로고스의 오만은 한 편으로는 합리성으로 무장한 철학의 추구를, 다른 한 편으로는 자연과의 단절에서 오는 인류의 또 다른 재앙,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 철학은 인간을 지적으로 살찌웠지만, 합리성에 기반한 지적 오만은 오히려 인간을 그런 지적인 굴레에 매여 허우적거리면서 자연과 단절 돼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제 다시 자연과 이야기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미토스의 지혜를 배워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과목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에서 서양 인문학적 지성의 원천을 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연과학적 성과에 의존한 시대이면서도 또한 인문학적 지성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시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과목은 그런 필요와 관련해 그 지성의 원천을 접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신화(종교)와 철학을 상호 연관 속에서 고찰한다. 특히 이 과목은 세계에 대한 이질적인 표상에 근거한 상이한

사상체계인 신화(종교)와 철학에서 그것들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본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표상 속에서 철학적 표상의 근거를 보고 그렇게 해서 종교에서 철학으로의 이행 과정을 탐색한다. 신화는 재미있는 그럴듯한 이야기인 허구이다. 그런데 허구인 신화에 등장하는 실제하지 않는 신들이 마치 실제하는 신들처럼 믿음의 대상이 되면서 신화는 종교화돼 간다. 동시에 그렇게 등장한 종교는 점차 디오니소스종교, 오르페우스종교, 피타고라스종교 같은 구원 종교로 변화해 간다.

이런 종교에서 인간 구원과 관련해 접하게 되는 개념이 '신들림'이라는 종교현상이다. 이 말은 '무한한' 신이 '유한한' 인간 안에 들어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런 종교의 신도들은 그들이 믿는 신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한한' 신과 '유한한' 인간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할까? "닮은 것은 닮은 것에"라는 그리스의 속담에 비추어 볼 때, 이질적 존재인 인간과 신이 만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인간 안에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신들림이라는 종교현상이 실제로 이런 종교에서 나타난다면, 인간 안에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 요소는 신처럼 죽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인간 안에 있는 죽지 않는 요소로서의 '영혼'이다. 이런 '영혼'의 발견은 죽는 인간 안에서 죽지 않는 요소를 보았다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다. 그때까지 죽지 않은 인간은 없었으니까. 종교를 통해 '영혼'이라는 말이 그리스인들에게 보편화되자 소크라테스는 시민들에게 '영혼의 보살핌'을 강조했다. 이는 인간의 영혼 안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자각시키려는 말이다. 결국 소크라테스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인간다움의 기능으로써 이성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이성의 활용을 통해 철학이 꽂을 피우게 되며, 소크라테스의 뒤를 이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한다. 결국 이들을 통해 철학의 언어가 득세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적 종교적 사유는 퇴조하게 된다. 플라톤의 『국가』 10권에서의 시인 비판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인간의 인문학적 지성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신화적) 요소와 이성적(합리적) 요소의 양면성을 통해 전개돼 왔으며 이 둘은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과목을 통해 이런 과정을 탐색해 보고 싶지는 않은가?